

# 2024년 함평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함 평 군 의 회  
(의회사무과)

I. 출장 배경 및 내용	3
II. 출장국가 일반현황	
1. 뉴질랜드	5
2. 호 주	7
III. 방문지 현황 및 사례수집	
1. [현장시찰①]오클랜드참전비	10
2. [현장시찰②]와이토모 동굴	11
3. [현장시찰③]거버먼트 가든즈	12
4. [현장시찰⑤]아그로돔 농장	14
5. [공식방문①]노인복지시설(퀸스타운컨트리클럽)	16
6. [현장시찰⑦]해글리공원(에이번강)	23
7. [공식방문②]호주한인복지회	24
8. [현장시찰⑧]바랑가루 도시재생	31
9. [현장시찰④,⑥,⑨]국립공원	36
10. [공식방문③]블랙타운시의회	40
11. [현장시찰⑩]캐리지웍스	50
12. [현장시찰⑪]패딩턴레저부아가든	51
IV. 출장결과(정책제언)	
1. 다문화정책	52
2. 지역자산의 관광자원화	53
3. 도시재생사업	59
4. 맞춤형 관광전략개발	63
5. 민관협력관계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및 복구계획 강화	66
6. 공원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	69
7. 기타분야	73
V. 출장후기	81

# I. 출장 개요

**1 출장국** : 뉴질랜드, 호주

**2 출장기간** : 2024. 5. 17.(금) ~ 2024. 5. 26.(일)(8박10일)

**3 출장자**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1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웅	의회운영위원장
2	일반행정위원회	이남오	일반행정위원장
3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
4	의회사무과	박순미	의정팀장
5	의회사무과	이동규	주무관
6	의회사무과	방정현	주무관

**4 보고서 작성자**

○ 정현웅, 이남오, 김은영, 박순미, 이동규, 방정현

**5 출장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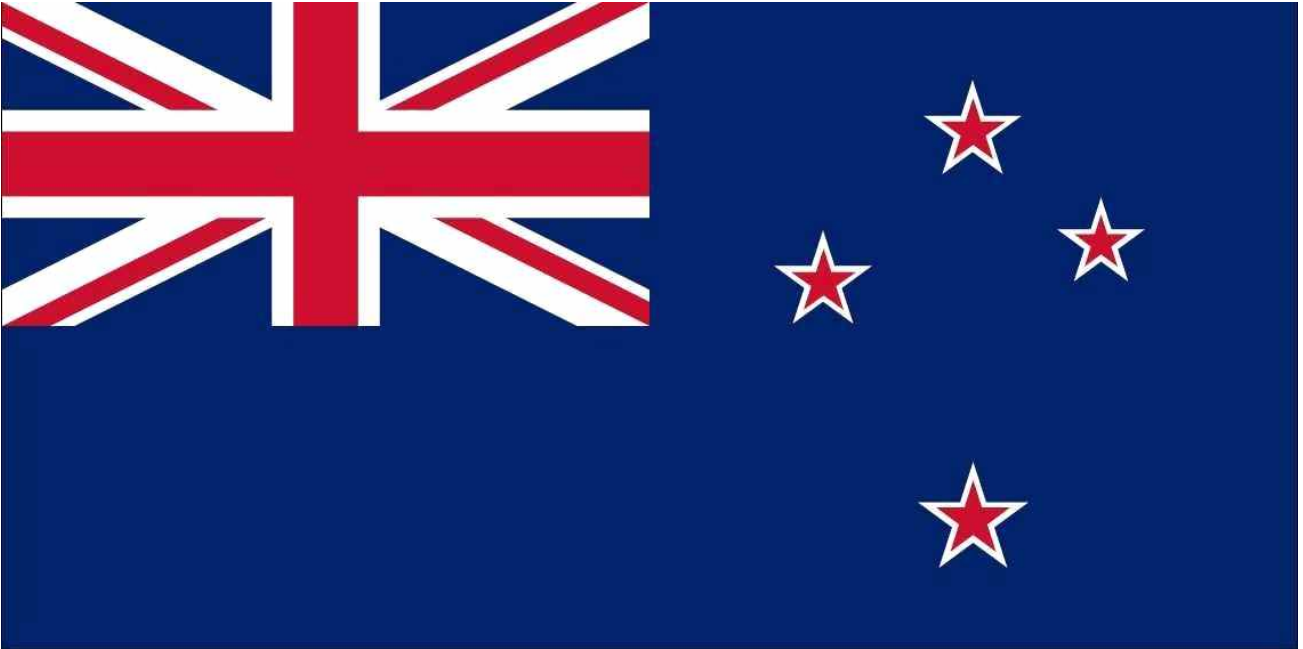
- 환경 청정국이자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여 환경, 도시재생, 노인복지, 관광산업 등 선진정책 및 시설에 대하여 비교·고찰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을 넓히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우리 군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군에 맞는 정책으로 변형시켜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선진 국가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에 대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의회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6 출장내용

월일 (요일)	구 분	방문 대상	업무 내용
5.17. (금)	인천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국제공항 출발</li> <li>오클랜드 공항 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411편 (17:55 인천 출발)</li> </ul>
5.18. (토)	[현장시찰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클랜드 참전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청년들을 기리는 장소 방문 및 역사의식 고양</li> </ul>
	[현장시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와이토모 동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를 테마로 문화, 환경, 예술, 교육이 함께하는 축제, 생태도시로서 발전할 방안 연구</li> </ul>
	[현장시찰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버먼트 가든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토루아 중심의 구청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곳으로 함평군 건물 빈 공간 활용 방안 연구</li> </ul>
5.19. (일)	[현장시찰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드우드 수목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공원 이용 활성화</li> </ul>
	[현장시찰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그로돔 농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질랜드 전통농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li> </ul>
5.20. (월)	[공식방문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시설 기관방문 (퀸즈타운 컨트리 클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복지시설 기관방문</li> </ul>
5.21. (화)	[현장시찰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오르랜드 국립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 활용 현장 시찰</li> </ul>
5.22. (수)	[현장시찰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글리공원, 에이번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 관리체계 및 수변공간 활용 사례 비교</li> </ul>
5.23. (목)	[공식방문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한인복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정책 및 다문화 정책 관련 비교연구</li> </ul>
	[현장시찰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랑카루 도시재생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지구의 주요특징 등을 벤치마킹하여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li> </ul>
5.24. (금)	[현장시찰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루마운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광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우수사례 견학 및 안전 관리체계 시찰</li> </ul>
	[공식방문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드니 블랙타운 시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회 운영 및 정책개발, 현안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li> </ul>
5.25. (토)	[현장시찰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리지웍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건물을 활용하여 조성된 시장 및 문화공간 시찰</li> </ul>
	[현장시찰⑪]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딩턴 리저뷰어 가든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존과 재생의 변화 벤치마킹</li> </ul>
5.26. (일)	시드니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드니 국제공항 출발</li> <li>인천국제공항 도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0402편 (17:45 인천 도착)</li> </ul>

## II. 출장 국가 일반현황

□ 뉴질랜드(New Zealand)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영연방 왕국으로, 수도는 중부 웰링턴,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는 북부에 위치한 오클랜드이다.

- 인 구 : 5,269,939명(2024년 기준, 세계 121위)
  - 유럽인 64.1%, 마오리족 16.5%, 중국인 4.9%, 인도인 4.7%, 사모아 3.9%, 통가어 1.8%, 쿡제도 마오리족 1.7%, 영어 1.5%, 필리핀인 1.5%, 뉴질랜드인 1%, 기타 13.7%
- 수 도 : 웰링턴
- 면 적 : 268,021km<sup>2</sup> (대한민국의 약 2.5배)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어
- 행정구역 : 지방(16개), 기초자치단체(13개 시, 53개 구역)
- 정 치 : 영연방 왕국, 입헌군주제, 단일국가, 의원내각제, 단원제
  - 총선으로 의회가 구성되면, 총독이 총리를 임명
  -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나 연립정권의 제1당 당수를 총

## 리로 임명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여, 제1 투표를 통해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72명을 의원으로 선출. 72명 중 65명은 전국의 65개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며, 나머지 7석은 마오리족들을 위한 지역구로써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 마오리족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

## ○ 기 후

-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해양성 기후, 높은 산맥 등 복잡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섬과 북섬의 기온 차가 상당한 편
- 또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으로 화산과 지진이 잦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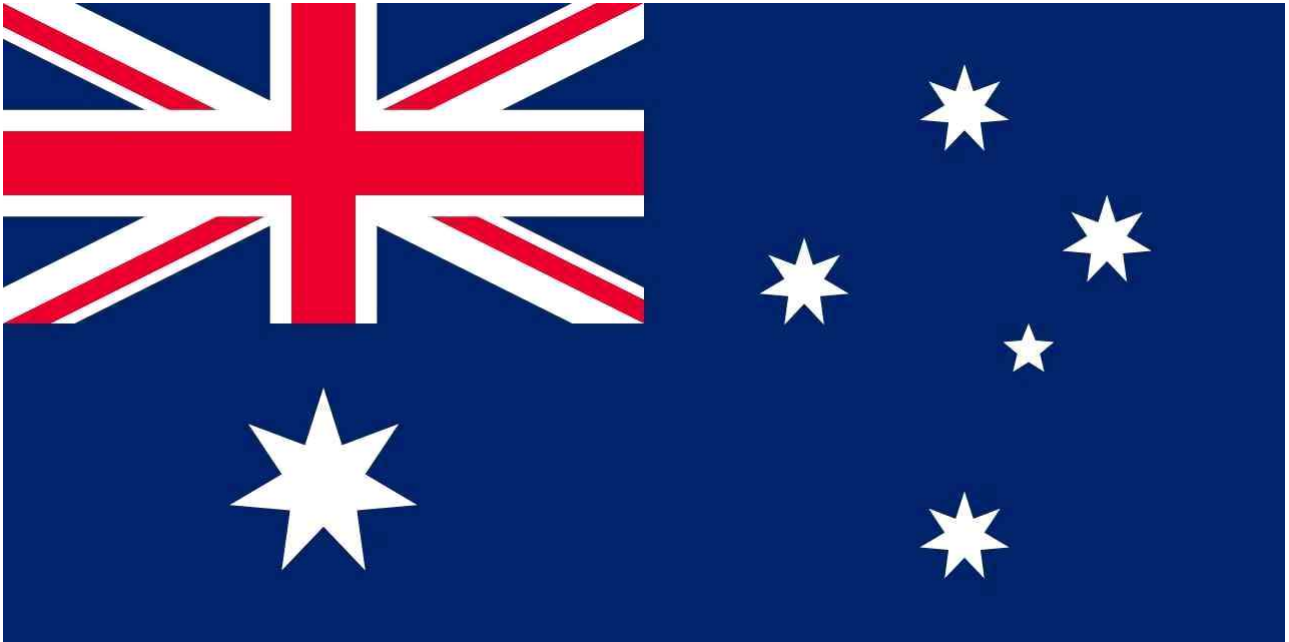
## ○ 경 제

- 낙농업과 천연자원 수출 등 1차 산업으로 번 돈을 금융업과 IT산업 등 3차 산업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1차산업으로는 주로 양, 양고기 양모와 소, 쇠고기, 돼지고기, 버터, 치즈, 포도주 생산으로 등이 유명
- 1인당 GDP는 약 48,249달러로 2022년 기준 세계 20위

## ○ 사회보장

- 뉴질랜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로 노령 연금법(1898), 사회보장법(1938), 최저임금제(1945) 등 사회보장의 기틀 마련

□ 호주(Australia)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는 남반구에 위치한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륙이자 여섯 번째로 큰 땅을 가진 나라

○ 인 구 : 26,699,482명(2024년 기준, 세계 55위)

- 영국 33%, 호주인 29.9%, 아일랜드인 9.5%, 스코틀랜드 8.6%, 중국인 5.5%, 이탈리아 4.4%, 독일인 4%, 인도인 3.1%, 호주 원주민 2.9%, 그리스인 1.7%, 불특정 4.7%

- 영어 72%, 북경어 2.7%, 아랍어 1.4%, 베트남어 1.3%, 광둥어 1.2%, 기타 15.7%, 불특정 5.7% (2021년 추정)

○ 수 도 : 캔버라

○ 면 적 : 7,741,220km<sup>2</sup>(대한민국의 약 77배)

○ 언 어 : 영어

○ 행정구역

- 6개 주(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빅토리아 Victoria, 테즈메이니아 Tasmania, 서호주 Western Australia, 남호주

South Australia, 퀸즐랜드 Queensland), 2개 준주(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노던 준주)

- 뉴사우스웨일즈주(NSW)가 가장 오래되고, 인구가 많은 주.

○ 정 치

-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국가, 입헌군주제, 연방제, 의원내각제
-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내각책임제가 혼합된 형태

[표] 호주의 정치제도

구 분	내 용
입법부	군주,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행정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정부 기관장이 임명한 총리 및 기타 국무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의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연방 집행위원회
사법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과 다른 연방 법원, 의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 장관이 임명하는 판사

○ 의 회

- 상·하원 양원제
- 상원의원(76명)은 대선거주제와 비례 투표제로 선출. 주(州)에서 선출된 6년 임기의 72명(6개 주X12명)과 준주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4명(2개 준주X2명)으로 구성
- 하원의원(151명)은 임기 3년으로 소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로 선출. 하원의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 기 후

-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서부 지역 40% 및 북부 지역 80%는

열대성, 나머지 지역은 온대성 기후에 속함. 한국의 기후와 반대이다.

- 2009년에는 기상이변까지 겹쳐 가뭄, 모래폭풍, 홍수, 산불을 동시에 겪음. 2009년 2월 발생한 남동부 일대의 산불은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보았음. 2011년에는 수해로 인해 농작물의 가격 폭등 사태도 겪었음. 2019년~2020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블루마운틴의 절반이 소실되었고, 총 한반도 면적의 28%에 달하는 지역이 타버리는 등 산불 발생과 기상이변이 겹치는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

#### ○ 경 제

- 시장 경제, 높은 1인당 GDP(호주 64,491달러, 세계 9위 - 한국 32,409달러, 세계 29위 2022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 등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
- 오세아니아 역내에선 지역 강국 지위를 갖고 있으며, 2,669만 명이라는 미약한 인구 대비 세계 명목 GDP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부국이다. 1인당 GDP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유일하다.
- 특히, 석탄, 철광석 등의 지하광물이 풍부하다.

### III. 방문지 현황 및 사례 수집

#### [현장시찰①] 오클랜드 참전비

##### □ 지역 개요

-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참전국 중 하나로, 당시 수상이었던 홀랜드(Sidney George Holland)의 한국전쟁 파견 주장에 의회 만장일치 동의로 제일 먼저 UN의 파병 요청에 응답한 국가로 육군과 해군 총 4,700명의 용사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다.
- 뉴질랜드는 포병부대를 파견하여, 화력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1951년 4월 가평 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중국 참전 이후 악화되어 가던 대한민국 전황을 회복시키고 높아져 가던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큰 전공을 세웠다.



오클랜드 참전비 추모

- 한국과 뉴질랜드는 6·25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활발한 인적·문

- 화적 교류로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현재 뉴질랜드의 제5위 교역국으로 상호호혜의 무역 관계를 토대로 교역 확대를 위한 FTA를 체결하여 농수산협력 이행약정, 워킹 홀리데이 확대, 일시 고용 입국 비자 신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혔다.
  - 한국전쟁으로 시작된 인연이나 뉴질랜드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상호협력국가가 되었듯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약 국가 재건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평화 구축을 위해 기여할 뿐 아니라 해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현장시찰②] 와이토모 동굴

- 와이토모 동굴은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카토 지방에 있는 관광 명소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며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곳이다.
- 와이토모 동굴 안내센터에서 동굴까지 걸어가는 숲길은 마치 고생대의 자연을 보는 듯하며, 특히 동굴 입구의 거대한 고사리가 초입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동굴 내부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인 석순과 종유석이 장관으로 펼쳐진다.
- 이곳은 반딧불이 서식지로 유명하여 자연보호를 위해 내연기관 보트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에 설치된 밧줄을 당기어 유람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반딧불이는 한국과 다르게 날아다니지 않고 벽에 붙어 있는 형태로 보트에서 위를 올려다봤을 때 동굴 내부 벽이 마치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처럼 빛나는

자연의 경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뉴질랜드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데 자연이 인간을 위해 이용·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공존하는 존재로서 자신들은 자연환경을 잠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교육과정에서도 환경교육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래종을 제거하는 현장학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2차 산업을 육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뉴질랜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한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 중 하나기 때문에 관광 과정에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 [현장시찰③] 거버먼트 가든즈

- 뉴질랜드 북섬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 로토루아 중심부의 로토루아 호수(Lake Rotorua) 옆에 있는 공공 공원으로, 1800년대 말, 현지 마오리 부족이 땅을 정부에 기증한 후 정부에 의해 관광명소로 지어졌으며 뉴질랜드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이다.
- 1908년, 뉴질랜드 정부는 이곳을 남태평양의 온천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튜더식 건축양식의 큰 온천장을 개장하였다.
-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온천객으로 붐비던 이 건물은 이후 목재 골조의 로토루아 박물관(Rotorua Museum)으로 바뀌었

고, 그 당시의 역사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다.

- 박물관과 정원의 조화로움과 정원의 개방감이 많은 관광객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잘 관리된 화단과 잔디에 여러 진귀한 식물들을 볼 수 있어 방문객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곳곳에 보행로가 잘 표시되어 있어 보행자 친화적이다.
- 이후 거버먼트 가든즈는 1982년~1999년까지 폐쇄되어 있다가 몇 차례 보수를 거쳐 지금은 로투루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로투루아 의회는 거버먼트 가든을 노년을 위한 볼링 클럽으로 사용하는 등 구 관청 건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우리 함평도 현재 쓰이지 않는 과거의 공공건물을 보존하고 동시에 건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자연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도 유치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와이토모 동굴



거버먼트가든즈

## [현장시찰④] 아그로돔 농장

- 아그로돔(Agrodome)은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의 주요 명소 중 하나로, 1971년 고드프리 보웬(Godfrey Bowen)과 조지 하포드(George Harford)가 농장 테마파크로 설립했으며, 보웬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세계 챔피언 양털 깎는 사람이었고 하포드는 지역 농부였다. 보웬의 동생 이반은 양털 깎기 전문가로 아그로돔의 수석 쇼맨이었다.
- 실내 프로그램으로 19가지 품종의 양을 무대 위에서 소개하고, 살아있는 양털 깎기 시연을 보았다. 또한 양몰이쇼를 보여주는데 양몰이 개는 양을 모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들은 짓지 않고 눈으로 양을 쫓아봐서 양을 몬다고 한다. 또 매우 영리하고 활발하며, 주인과 교감을 잘한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무대에 올라 아기 양에게 먹이를 주거나 젖소의 젖을 짜볼 수 있다.
- 야외 프로그램(농장 투어)으로, 트랙터를 타고 농장을 둘러보며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양, 라마, 알파카 등 친근한 동물에게 손으로 직접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동물과 교감하며 먹이를 주는데,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 아그로돔 농장 체험은 우리 군의 자연생태공원의 초식동물 먹이주기 및 반달가슴곰 건빵주기와 유사하였다. 다만 뉴질랜드 아그로돔과 자연생태공원의 차이는 아그로돔은 실내에서 양털깎기 등을 하고 야외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며 알파카, 양에게 먹이를 주며 동물과 교감하고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자연생태공원은 야외에서 동물에게 먹이

를 주는 프로그램 위주로 단조로운 면이 있는 것 같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뉴질랜드 아그로돔의 최고의 장점은 야외에서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양과 알파카 수십 마리에게 먹이를 직접 주며 동물들과 피부로 교감할 수 있다는 점 같다.

○ 사진



아그로돔 실내 프로그램(양털 깎기 체험 등)



아그로돔 야외 먹이 주기 프로그램(양, 알파카 등)

## [공식방문①] 노인복지시설 기관방문(퀸스타운 컨트리 클럽)

□ 노인복지시설(Queenstown country club)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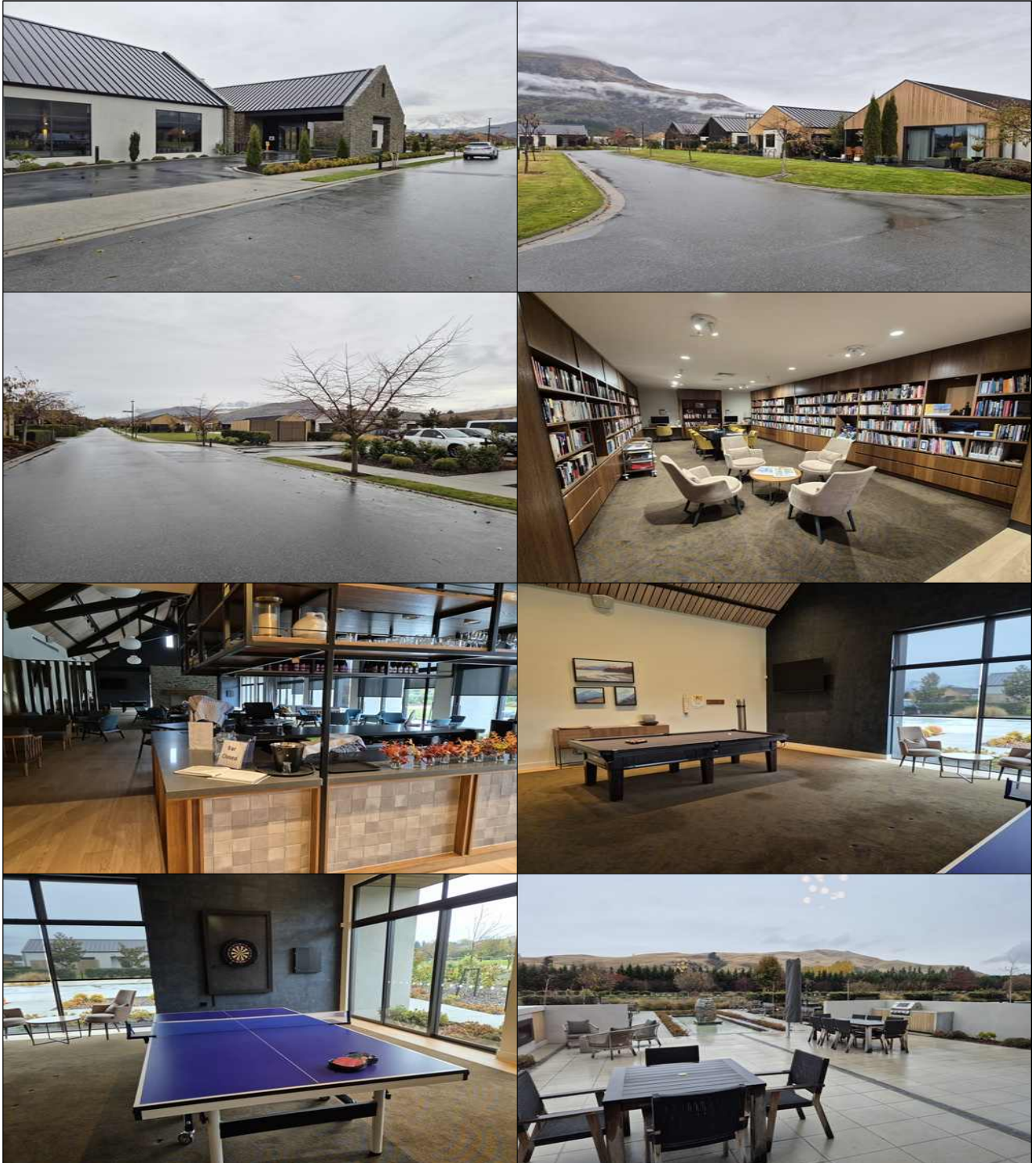
○ 위 치 : 뉴질랜드 퀸즈타운

○ 주 소 : 420 Frankton-Ladies Mile Highway,  
Cnr Howards Drive, Queentown 9371

○ 개 요

- 사람 중심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은퇴자 마을로 요양원, 병원 수준 및 치매 치료를 위한 최첨단 케어센터를 건설 중이었다. 거주자는 돌봄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여 숙소 바로 앞에 헤이즈 호수, 샷오버 강, 프랭크턴 등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다.
- 최근 완공된 1,650제곱미터 면적의 클럽하우스는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 헬스장 및 도서관, 벽난로 및 당구대가 마련되어 있어 노인들이 고독하지 않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 거주 공간은 개인별 생활 양식 및 관심사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상호 간 마찰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형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 시설사진



□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제도

○ 요람에서 무덤까지

- 뉴질랜드는 고령자들을 위해 1930년 이후 점진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

여 고령자 대부분은 공적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병원 진료비, 입원 서비스 비용 등이 국고로 부담되면서 무료로 가까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누리고 있다.

○ 노후 생활보장 정책

- 뉴질랜드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 노령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1938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노인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65세부터 가구 형태로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 보편적 노령연금제도는 ‘은퇴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에서 별도 항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연금 수급 자격에서도 자산과 상관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었다면 주당 672달러(한화 약8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 노인들은 이러한 노인 연금제도에 의해 생계 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 수급액만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주택 보조 수당, 거주자 보호 수당, 특별수요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 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연금제도는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된 제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대상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노인 단독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 ○ 노인들을 위한 의료혜택

-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 서비스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 의료비를 감축하고자 무상으로 지원했던 다양한 혜택을 대폭 수정하였다.
- 일련의 조치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인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 시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전액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 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의 각종 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이나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저렴한 요금만 부담하도록 한다.
-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준비되어 있어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환자는 거의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노인을 위한 간병 보호 서비스

- 뉴질랜드의 간병 보호 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 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

인 또는 민간기업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 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중 87%가 생계비 또는 시설 입 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재가 간병 및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 급부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 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 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피 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 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제도(Domestic Purposes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 고령자 부양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살피는 경우도 그 비용을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Q. 질의 : 현재 뉴질랜드의 노인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며,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잘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A. 답변

- 2024년 기준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약 17%가 65세 이상으로 이 연령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약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장점은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 서비스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무료 병원 치료

제공하며 정부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의 거주민에게 뉴질랜드 슈퍼에뉴에이션(NZ Super)이라는 보편적 연금제도가 있다.

- 뉴질랜드의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단체에 참가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활발한 생활을 영위하며 안전한 환경과 높은 삶의 질,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 뉴질랜드 노인복지의 문제점은 추가 저축이나 투자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 비용과 노후주택의 수리 등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며, 공공 보건 시스템 이용 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Q. 질의 : 한국은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 등급별로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으로 나누어진다.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A. 답변 : 뉴질랜드에서 계약된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해당 개인은 Health New Zealand 또는 Needs Assessment and Service Coordination(NASC) 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에서 해당 개인의 건강 상태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특정한 연령 제한은 없다.

Q. 질의 : 이곳 기관의 근무 인원은 몇이며,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A. 답변 : 약 50명의 직원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가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Q. 질의 : 시설 운영에 있어 국가의 고정적인 예산지원은 있는가?

A. 답변 : 개인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난한 노인들은 정부로부터 요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거의 없는 편이다.

Q. 질의 :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

A. 답변

-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하는 요양과 지원 옵션을 제공하며 반자동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아파트에서부터 요양원, 병원 수준, 치매 치료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 : 각 주민은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건강과 인지적 웰빙을 위한 개인 코칭, 특정 문제와 질환 관리 지원, 약물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식이 조언이 포함된다.



기관 담당자 브리핑



단체사진

## [현장시찰⑦] 해글리공원(에이번강)

### □ 지역 개요

- 크라이스트처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1855년 당시 캔터베리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원이다. 165헥타르의 광대한 부지는 리카톤 거리를 경계로 북 공원, 남 공원으로 나뉘어 있다. 북쪽 공원에는 골프 코스(12홀), 테니스장, 축구장 등이 설치되고, 남쪽 공원에는 네트 볼 코트, 럭비 경기장, 축구 경기장, 크리켓 경기장, 하키 경기장 등이 설치되어 크라이스트 처치의 각종 스포츠 경기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 여름철에는 야외 콘서트 “클래식 스파크”(Classical Sparks)가 개최되어 약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 북쪽 공원에는 에이번강이 흐르고,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인다. 공원에서 희귀 조류도 관찰된다. 1882년 산업박람회장이 되고 1906년~1907년 뉴질랜드 국제박람회장이 된 적도 있다. 서커스 등 각종 행사도 자주 열렸다.
- 북쪽 공원은 크라이스트처치 식물원, 크라이스트 대학(사립학교),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글리공원(에이번 강)

## [공식방문②]호주한인복지회

### □ 기관현황

- 위 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 주 소 : 161 Arthur St Homebush West NSW 2140
- 회 장 : 이 용 재
- 기관성격 : 197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 호주 정부 기관의 지원금과 한인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한인 교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서비스 및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 한인복지회는 한인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도와 시드니 한인들이 의미 있고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한인복지회는 관련 정보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게 한다.

### □ 기관 주요 연혁

- (1979년) 호주 정부 인가 공식 단체 등록
- (1980년) 호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승인
- (2006년) 한인 단체 최초 데이케어 서비스 시작
- (2022년) 호주 정부 홈케어 제공기관 승인

### □ 호주의 복지제도

- 사회보장제도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복지 국가
  - 호주는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연방 국가가 된 이래로 사회보장에 대한 각별한 정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

- 전체 인구 2,600만명 중 약 750만명이 노령연금, 실업수당, 학업장려수당, 한부모 가족수당 등 최소 1가지 이상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정도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발달되어 있다.
- 발전된 호주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호주 국민들에게 ‘복지’는 혜택이 아닌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 세계적 수준의 호주의 사회 복지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소득에 비례하는 높은 수준의 세금(소득 대비 19%~45% 누진세), 퇴직보험의 의무화 등 자원과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측면도 있으나,
- 자원봉사단체 1만개 이상 전 국민의 31%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정도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문화 등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오늘날 호주를 복지 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부분이 크다.
- 또한 호주 정부는 통상 67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을 연 15시간 이상 자원봉사 참여자에 한해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봉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한국과 호주는 사회보장 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2008.10.) 하여 호주에 35년 이상 거주한 한인 동포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호주의 노령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세수 확보 등 복지 정책추진에는 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호주의 출산율은 1.58명(2020년 기준, 세계 평균 2.58명)으로 낮은 편이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민자 수: 총 인구대

비 약30%, 연간 16만명)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 □ 호주 다문화 정책

○ 호주로 건너온 영국계 첫 이민자들은 철저히 앵글로 켈틱 중심의 영국 중심의 문화였다. 소위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정책은 1800년에서 1972년까지 연속되며, 1901년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영구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만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Immigration Restruction Act를 제정하여 비 유럽인들의 이민을 억제했다. 이민자들의 풍요로운 문화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앵글로 켈틱의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지 않으면 배격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영국계 이민자들만으로는 당시 노동력이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유고 슬로비아로부터 이민을 받게 된다. 호주는 매년 자연증가 10만명, 이민 20만명으로 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주의 국가를 형성한 지구상 최대 복지 및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국가이다.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주의는 각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인정 존중하면서 호주의 주류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 ○ 다문화 정책의 주요내용

-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및 중점 지원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다양한 문화간의 화합과 통합을 잘 이끄는 도시를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다문화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문화적지원(통번역서비스, 언어교육 등) : 이민자들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하여 온라인과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
- 조화롭게 살기 프로그램 : 다문화 커뮤니티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천 3월 21일 국가적 하모니데이로 지정하고 주로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 주관
- 방송 미디어의 역할 : 공중과 텔레비전인 SBC는 방송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려는 호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60개가 넘는 언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추진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Q. 질의 : 한인복지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A. 답변

- 1979년도에 정식으로 결성되어 주정부의 인가를 받고 1983년도부터 호주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호주 이민 초창기 한인 동포들에게 언어와 이민 정착에 따른 도움을 주기 시작하였다.
- 주요업무
  -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한 데이케어 운영
  - 정부 주택 및 각종 민원 서류 도움
  - 이민 생활에 각종 안내
  - 각종 문화행사, 컴퓨터, 한문 및 한글 교육, 바둑, 음악교실

-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 해피 클래스
- 홈케어(가정 방문 서비스)
- 장애인 돌봄 서비스
- 복지회 문화센터 운영(리드컴 시청홀, 로즈 대학교, 캠퍼스 강의실)

Q. 질의 : 한인복지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A. 답변 : 현재 회원들에게 하는 홈케어, 데이케어 서비스가 다른곳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지도록 인력에 대한 대우를 더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다.

Q. 질의 : 한인복지회에서는 어떻게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A. 답변 : 재가 복지사업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통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Q. 질의 : 현재 한국은 재가복지사업으로 요양보호사가 있으며 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호주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A. 답변 : 호주에서는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각 등급에 따라 1년에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10,271불에서 59,593불까지 결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Q. 질의 : 호주에서는 은퇴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A. 답변 : 정확히 말하면 은퇴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55세부터 자원봉사를 할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연금 67세 이전에도 정부로부터 약 450불의 혜택이 주어진다.

Q. 질의 : 호주에서 자원봉사는 얼마나 참여하는가?

A. 답변 : 호주국민의 52%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까 언급한대로 55세 이상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하며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Q. 질의 : 호주의 다문화 정책으로 현재 한국인이 얼마나 되는가?

A. 답변 : 호주의 현재 인구는 2,600만명 정도이고 2021년 호주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호주의 한국인은 언어로 11만 5천명, 조상으로는 13만 688명이고 여기에 유학생, 워홀러, 지사와 상사등을 합하면 호주의 한국인은 약 20만명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Q. 질의 : 호주에서의 한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황과 인식이 어떠한가?

A. 답변 : 현재는 매년 3,000명 정도가 호주 영주권을 받고 있고 매년 한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지위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질의 : 대표적 다민족 사회인 호주의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가?

A. 답변 : 호주에서의 인종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수십 년 전 보다는 훨씬 적어졌고,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회가 사회 근간임에 따라 문화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기저이며,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기관 담당자 브리핑



단체사진

## [현장시찰⑧] 바랑가루 도시재생

### □ 지역 개요

- 바랑가루는 오페라하우스의 서남쪽 방향에 위치하며 해운업 및 항만 하역장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으로
- 선박의 크기 및 화물컨테이너 크기가 변경되고 하역량의 증가에 따른 화물철도의 연결 부족으로 화물 하역장으로서 역할을 잃게 되어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 2003년에 시작하여 202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시드니 지역 옛 화물 하역장을 최신 상업·주거지구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중이다.
- 주로 3가지 부분(바랑가루 리저브, 바랑가루 사우스, 센트럴 바랑가루)로 나누어져 있다.



### ○ 바랑가루 리저브

- 2015년 시드니 시민들에게 공개된 바랑가루 리저브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자연 그대로 복원한 공간으로 이곳은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이 아

나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전통적인 해변 코브의 풍경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소한의 건물만을 남기고, 자연을 존중하는 디자인으로 조성되었으며, 6헥타르(18,000평)의 면적에는 10,000개의 샌드스톤 자연 돌과 75,000그루(45종)의 토속 나무와 관목이 심어져 있다. 이를 통해 산업화되기 이전의 지역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재료인 샌드스톤, 재활용 모래, 나무 부스러기 등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상태 개선으로 울창한 숲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바랑가루 리저브는 시드니와 주변 지역에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곳은 바랑가루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현하고 변모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산업지역에서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살아온 곳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재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 바랑가루 사우스

- 바랑가루 사우스는 계획부지의 남단에 위치한 고밀도 주상복합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 바랑가루(Barangaroo) 항구 해안에 있는 인터내셔널 타워(International Towers)는 호주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본거지인 진보적인 업무 공간이다.
- 크라운 시드니(Crown Sydney)는 시드니와 바랑가루 최초의 6성급 호텔 리조트로 최고의 레스토랑과 식당, 바, 아파트, 시드니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전망대 갖추고 있다.

- 바라가루 하우스(Barangaroo House)는 목재 외관과 장식용 및 식용 녹지가 모두 있는 식사 장소이다. Collins와 Turner가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디자인했다.
- 알렉산더(Alexander)와 아나다라(Anadara) 주거용 건물에는 약 160개의 아파트와 지상층 소매 공간이 있으며, 해안가 환경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상과 질감이 특징이다.
- 원 시드니 하버(One Sydney Harbour)는 건축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크리스탈에 대한 사랑과 그의 건축 작품에 대한 반사를 구현하여 '끊임없는 변화무쌍한 색상과 반짝임'에 찬사를 받는다.



바라가루 리저브

- 워터맨스 코브(Watermans Cove)는 초승달 모양의 캔틸레버 방식의 바라가루(Barangaroo) 해안가 산책로에서 물가로 내려가는 원형 극장 스타일의 보드워크이다.



바랑가루 사우스

○ 센트럴 바랑가루

- 센트럴 바랑가루의 서쪽 절반은 바랑가루 행사, 레크리에이션, 오락을 위한 열린 공간인 하버 파크로 바랑가루 최고의 식당들의 본거지인 커뮤니티,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용, 소매용, 상업용 건물들이 있는 복합 개발 구역도 위치한다.



센트럴 바랑가루

## □ 추진현황

- 2003년: NSW 주정부에서 바랑가루 지역을 사무·오락 및 주 상복합 공간으로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2005년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2006년 바랑가루라는 새로운 명칭을 공식 발표(원래 지명은 Millers Point)하였다.
- 주정부의 포커스 변화에 따라 시드니 상업중심지구 및 아태지역 제1 금융서비스 센터로 발전 컨셉을 정했으며, 자연적인 공간의 비중이 기존계획보다 강조되었다.
- 2009년: 시드니 항만청에서 관리하던 바랑가루 도시재생 업무를 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시행청이 전담하도록 기관 설립
- 2012년: 바랑가루 지구 최초의 상업용 빌딩 신축을 시작으로 근처 지하철역과의 도보 연결 터널 신축, 13년 3대 상업용 빌딩 신축하고 바랑가루 공원을 개발시작으로 15년 바랑가루 공원개발을 완료
- 2016년: 국제시드니타워 최종 완공, 호주 5대 금융기관, 세계 금융기관 및 상업시설 등이 입점
- 2021년: 울루울루무에서 안작교까지 11km의 해안 산책로를 완성하는 울루걸 워크 오픈
- 2023년: 하버파크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공간 오픈, 하버파크 디자인 대회 우승자 발표
- 2024년: 바랑가루 시드니 메트로 역 완공 예정

## [현장시찰④,⑥,⑨] 국립공원

### 1) 레드우드 수목원(와카레와레와숲)

○ 위 치 : Whakarewarewa, Rotorua 3074 뉴질랜드

○ 입 장 료 : 무료

○ 역 사

- 와카레와레와숲은 양목장으로 사용되던 곳에 1901년 여러 가지 자생나무와 외래종 나무의 조림 적합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조성된 곳으로, 처음에는 유황 온천지역이어서 12헥타르(ha) 중 6헥타르(ha)만이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2차세계 대전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Californian Coast Redwoods)를 비공식적으로 기증하여 심기 시작하였고, 레드우드가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레드우드 수목원이 성공한 이유는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레드우드는 낙뢰로 인한 화재에 대한 단열 및 곤충 보호, 화재 후에도 몇 달 후 죽은 외부층을 통해 새싹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코르크 같은 층의 역할을 하고 있다.

○ 특 징

- 로투루아 도심으로부터 남동쪽 5km 부근에 있어 자동차로 5분, 자전거로 20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 쥬라기공원, 잃어버린 세계, 반지의제왕, 아바타 등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 1970년 레드우드 산책로와 녹색 호수 민간 개방을 시작으로 1975년 산림공원으로 공식 지정, 1978년 공식 방문자 센터가 개관 및 운영되고 있다.

- 1993년 지역의 민간 단체에 의하여 산악자전거 코스가 최초 조성되었다. 관리업체와 산악자전거 클럽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트랙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었다.
- 2010년대부터 트래킹과 산악자전거 분야 외에도 숲의 전반적인 레크리에이션 기획에 착수하여 현재는 트래킹, 산악자전거, 승마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 레저시설

- 산악자전거 파크, 승마체험, 트래킹, 조깅,요가, 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드우드 트랙 표지판



레드우드 역사



트랙 안내판



나무길 걷기- 나무 사이로 설치된 28개 구름다리를 걷는 프로그램,

## 2)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 위 치: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부에 위치
- 면 적: 12,519km<sup>2</sup>
- 특 징
  -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
  - 1986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
- 레저시설 : 트래킹, 하이킹, 등산, 래프팅, 낚시, 보트 타기, 스노클링 등



## 3)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위 치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 면 적 : 267,954ha
- 특 징
  - 생태학적 다양성과 희귀성,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빛어내는 푸른 안개 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 울창한 유칼립투스, 협곡 등으로 조성된 사암 고원 지대
- 주말 등산이나 일일 관광코스로 유명하며 세자매봉, 경사 52도의 관광 궤도열차, 케이블카 시닉센터, 카툼바 폭포관광 및 산림욕 등으로 유명
- 관광용 궤도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닥 정거장 쪽에서 서쪽으로 보드워크(board walk)를 따라 걸으면 옛날 광산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이 나오고 당시 광부와 그의 말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블루마운틴 명소 세자매봉



광산역사와 관련된 조형물



시닉월드



광산역사와 관련된 조형물

## [공식방문③]블랙타운시의회

### □ 블랙타운시 현황

- 위치 :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부에 있으며, 시드니 GPO에서 약 35km 떨어진 시드니 서부 교외에 위치
- 면적 : 247km<sup>2</sup>
- 인 구 : 426,202명(2023년 기준)
- 주요 특징
  -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가장 큰 의회, 호주에서는 4번째로 큰 의회
  - 호주인 63명 중 약 1명이 블랙타운시시에 거주
  - 원주민 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함
  - 주민들은 188개의 서로 다른 출생지에서 왔으며, 182개의 언어를 사용함
  - 호주 이외의 출생 국가 중 상위 5개 국가는 인도, 필리핀, 뉴질랜드, 피지, 중국
  - 영어 이외의 상위 5개 언어는 필리핀어/타갈로그어, 편자브어, 힌디어, 아랍어 및 구자라트어를 사용
  - 주민의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22.7%는 0~14세 어린이, 20.6%는 55세 이상의 노인
  - 블랙타운 시시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전자산업과 에너지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젊은 실직자들 및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 □ 호주의 지방자치제도

### ○ 호주의 정부구조 :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 지방정부(Council)

- 연방정부(Federal Gov): 국정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책임 영역은 호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국방, 외교, 세무, 관세, 연금 분야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권한 행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다.
- 주정부(State Gov): 호주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 책임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지며, 교육, 경찰, 도로, 의료서비스, 농업 등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며, 각 주에는 정부 체제를 규정하는 자체 헌법이 존재한다.
- 지방정부(Local Gov): 규모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시드니 지역은 약 35개의 도시, 지방자치 단체 또는 shires로 나뉜다. 각 도시에는 자체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주의회의 법령에 따라 통제되며, 지방의회는 건축 규제 및 개발, 공중 보건, 지역 도로 및 보도, 공원 및 운동장, 도서관, 지역 환경 문제, 폐기물 처리 및 많은 지역 사회 서비스와 같이 지방단위의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여한다.

※ 세제일률주의(Uniform Tax Case) : 연방정부가 주요 세금을 징수하며 징수된 조세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분배하며 강력한 영향력 행사

### ○ 지방의회 현황 : 주의회(Parliamentary), 지방의회(Local Council)

## □ 호주 정부별 업무 및 역할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hower and get ready for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ower, gas, water sewerage from State corporations</li> </ul>	
Have breakf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urrency</li> <li>Trade, imports &amp; exports</li> <li>Advertis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umer laws</li> <li>Shop and work place law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ealth inspections of shops</li> </ul>
Catch the b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road fund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es, bus passes</li> <li>Traffic laws, Police</li> <li>Traffic lights, Road signs</li> <li>Major roads, road tax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 roads</li> <li>Streetsigns</li> <li>Busstops</li> </ul>
Go to 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unding to States</li> <li>Higher edu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ucation Department</li> <li>Schoolfunding and subjec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 kindergartens and pre-schools</li> </ul>
Go to the libr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Libra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te Library</li> <li>School libraries</li> <li>Subsidies to counci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 libraries</li> </ul>
Play s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ustralian Institute of Sport</li> <li>National sports bod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te sports centre</li> <li>Funding to local councils</li> <li>Safety, health and educ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 sports fields and playgrounds</li> </ul>
Phone a frie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elephone services</li> </ul>		
Watch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roadcasting laws</li> <li>ABC TV and Radio</li> </ul>		
Go to the do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dicare</li> <li>Funding to States</li> <li>Drug contro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ospitals</li> <li>Ambulance servi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ty services, e.g. meals on wheels</li> </ul>
Go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nning law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cal building controls</li> <li>Trees and footpaths</li> </ul>
Put out the garb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aste disposal</li> <li>Pollution contro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rbage collection</li> <li>Local environment</li> </ul>

□ 블랙타운시의의회와 함평군의의회 비교

구 분	블랙타운시의의회	함평군의의회
구성	시의원 15명(시장포함)	군의원 7명
근거	Local Government Act 1993(NSW)	지방자치법
의원수	15명	7명
의원 임기	4년	4년
의장 선출	의원 간 선거로 의장 선출	의원 간 선거로 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8개 (정책전략, 재정 및 자원, 지역사회 봉사, 기획,개발,역사 및 자산, 지역 교통, 예산추정, 기업계약, Warrick Lane 개발)	3개 (의회운영, 일반행정, 경제건설)
급여지급 형식	지방정부 보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금액은 정액제임	지방정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금액은 정액제임
급여 지급근거	Division 4 of the Local Government Act	지방자치법 제40조
보좌관·사무보조인력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음 시청내 근무 공무원들로부터 지원	지방의회의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둘 수 있음
회기운영	연간 최소 10차례 개최, 각각 다른 월에 열리도록 되어있음	매년 2회 정례회 개최
회기수당	의회참석 및 활동 관련 수당 존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존재
의회사무처 존재유무	별도 의회사무처 조직 없음	의회사무과 조직 있음

## ☞ 주요 토론 및 질의·답변

Q. 질의 : 시드니 안에서 블랙타운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색이 있는가?

A. 답변 : 블랙타운은 처음에 농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제조업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80년 동안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곳이다. 이는 사회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도 있는데 초기 해안가 쪽에 사람이 몰려 살다가 점점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 서부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이 블랙타운에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블랙타운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우리는 13만 6천 개의 지역 일자리와 3만 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226억 달러의 지역 경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15년 안에 블랙타운시티는 6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 시의회의 변혁적인 프로그램과 블랙타운 시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블랙타운 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성장, 번영의 황금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Q. 질의 : 블랙타운에는 구당 3명의 의원이 있어 총 15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임기는 4년으로 알고 있다. 그중의 한 명을 시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 선임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답변 : 15명의 시의원이 간접선거로 시의원 내 1명을 시장으로 뽑는다. 시장이 이번과 같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하

면 의장이 당분간 직무대행을 하다가 새로운 의장이 뽑히면 다시 의장직으로 돌아온다. 블랙타운시의회의는 이번 9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이다.

Q. 질의 : 블랙타운시의회의에는 3선 4선 한 의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의원들이 잘 바뀌지 않은 경우의 장단점이 있는가?

A. 답변 : 블랙타운시의회의는 의원이 잘 바뀌지 않는다. 최소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들도 있다. 의원이 잘 안 바뀌면 정책이나 사업이 연속성이 생겨 지속해서 추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유착관계나 부패 부분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타운시의회도 이러한 의무가 있고, 조례나 법을 어겼을 경우 제제가 일단 강하다. 또한 경제적인 유착관계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밝히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회의에 참석해도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이 없다. 더 나아가 아예 그 자리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단점도 있겠지만 사실 장점이 더 많다. 매번 바뀌면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예산 낭비가 훨씬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비용 절감부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Q. 질의 : 시의원이 선출되면 유급 체계인가, 무급 봉사 체계인가?

A. 답변 : 자원봉사 개념의 무급 봉사 체계이다. 의원들은 본인의 별도의 직업을 갖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용 처리나, 수당 등은 있지만 고정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 그렇기에 시장이나 의장 또한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거나 하지 않는다.

Q. 질의 : 그렇다면 이 시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하다.

A. 답변 : 시의원 15명이 한국으로 따지면 의회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

Q. 질의 : 한국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공무원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바뀌어도 직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는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유급직 사무총장을 따로 바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는 건가?

A. 답변 : 4년에 한 번씩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관해 재심사해서 재계약을 맺는다.

Q. 질의 : 블랙타운시의회 1년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가?

A. 답변 : 8,100억 원이다. 70%가 주민에게서 걷는 주민세, 부동산세 등이며 30%는 주 정부에서 보조받는다. 블랙타운은 전액 출자하여 진행한 투자와 자본이 있다. 그로 인해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많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주 정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Q. 질의 : 2024년 9월 14일이 호주 지방 정부 선거일이다. 호주는 82년 전 세계 최초로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

A. 답변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무조건 투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중 18세가 되어 선거사무소에 본인이 등록하면 그때부터 투표가 의무가 된다. 선거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투표자가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으므로 보통 사람들은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질의 : 우리 함평군은 함평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 전국 최대의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블랙타운에도 매년 개최하는 축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답변 : 블랙타운은 다양한 인구와 문화가 있는 다문화 도시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인디언 페스티벌과 같은 약 100개 이상의 공동체 행사를 허가하고 있다. 행사는 약 2주 동안 진행되며 1만 5천 명 정도 참여한다. 입장료는 별도 없지만, 공연에 따라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축제를 통해 다양한 이민자들과 원주민을 융화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Q. 질의 : 블랙타운시티가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의 수성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교류하게 되었으며, 하여 한국의 다른 지자체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답변 : 1994년도 블랙타운 시장이 6.25 참전 용사였다. 한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수성구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다. 현재로서 자매결연하는 도시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맺고 있는 도시인 중국, 필리핀, 아일랜드, 뉴질랜드, 수성구와의 교류에 집중하고 싶다.

Q. 질의 : 우리 대한민국은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블랙타운은 어떠한가?

A. 답변 : 블랙타운시티는 오히려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로 인해 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적다. 다만 문제는 고령화다. 현재 블랙타운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블랙타운시의회 기념촬영



블랙타운 시의회 회의장



기관 브리핑



블랙타운시의회 기념촬영



질의·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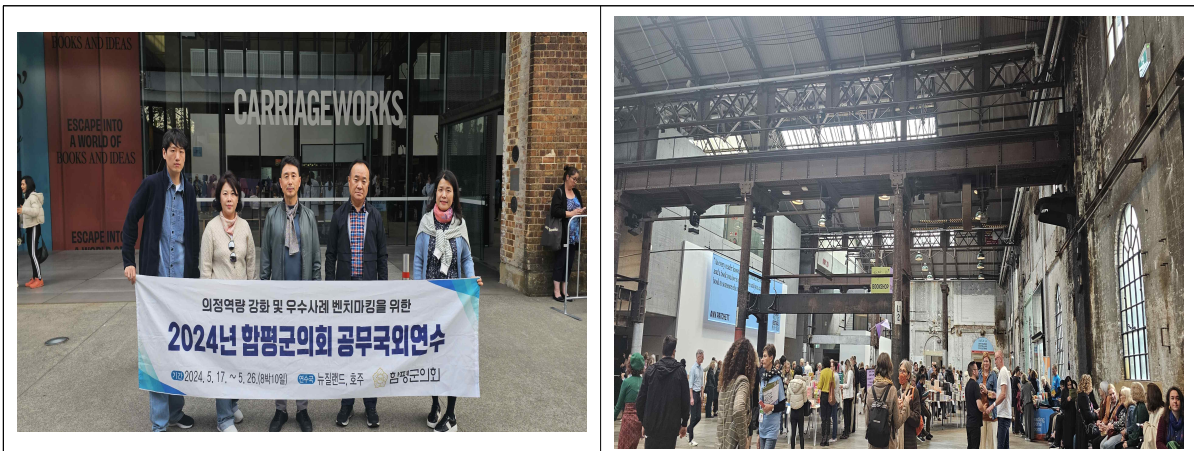


블랙타운시의회 기념촬영

## [현장시찰⑩] 캐리지웍스

### □ 지역 개요

- 2007년 1월 멜버른이나 아들레이드에 비하여 공연·예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시드니 주민들을 위하여, NSW(뉴사우스웨일즈) 예술협회에서 120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옛 철도청사시설을 허물지 않고, 현대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건물 출입구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유리와, 그 위에 간판을 대신하는 “CARRIAGEWORKS“라는 하얀색 로고체를 장식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건물 내부는 페인트칠되지 않은 거대한 콘크리트벽과 지붕을 받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의 뼈대까지 독특한 옛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 평소 다양한 장르의 유명한 아티스트와 신진 예술가들의 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NSW주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식품 등을 가져다 판매하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캐리지웍스

## [현장시찰⑪] 패딩턴 레저부아 가든

### □ 지역 개요

- 패딩턴가든은 시드니에 처음으로 저수지를 만들어 정착하기 시작한 자리에 건설되어 1866년부터 물을 공급하던 급수시설이었다
- 1899년 다른 곳에도 저수, 급수시설이 생겨나면서 폐쇄되어 100년 가까이 차량보관소 등으로 사용되다 1990년 지붕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철거와 보존의 논란이 있었지만 2008년에 원형을 유지한 채로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쉼터, 문화공간, 예식장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 지상보다 낮은 폭 파인 지형에 로마의 고대건축물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벽돌로 쌓은 아치와 벽면, 철골사이에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고 경관과 어울리는 의자 몇 개만을 배치해 도심속의 이색공간을 연출한다.
- 2009년에는 급수시설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인정받아 도시디자인상도 수상하였다.
- 가든 방문 시, 커다란 아치형 벽돌 골조와 정원을 배경으로 신부의 웨딩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도 있어 이곳이 사랑을 많이 받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패딩턴 레저부아 가든

## IV. 출장결과(정책제언, 시사점)

### 분야 1. 다문화정책

#### 1. 한인복지회

- 호주의 다문화정책의 개념은 여러 민족의 구성원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 우리나라는 법적 취득 여부와 별개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비로소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 현재 함평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23년 잠정 출산율은 0.72명으로 2072년에는 3,600만명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실정이다.
- 인구절벽 상황에 맞닥뜨린 절박한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안산, 김포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 들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다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한 한국 부모와 호주부모,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의 다문화 인식 실태조사 및 비교 연구에 따르면
-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가 92.5%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 부모 75.3% 한국부모는 5.2%

로 낮은편이었다.

- 이러한 통계들을 볼 때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문화 어울림 행사 등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1월 음력설을 쇠는 한국,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문화 축제의 장, 추석에는 한국음식축제, 3월 21일 하모니데이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 다문화 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8개국 338세대로 다문화 가정은 더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큰 규모의 행사보다는 우리군과 다문화 가정의 실정에 맞는 어울림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행사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비축제, 국향대전, 물놀이장 운영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국가별 특성에 맞는 작은 축제(예시, 세계놀이체험 코너 등 다문화 놀이터 운영, 장기자랑, 다문화축제의 밤, 다문화 음식 만들어 나누어 먹기 행사)를 열어 각 나라의 문화를 나누고 배우는 등 함께 즐기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새터민	기타
338	149	52	70	22	28	4	3	6	1

〈표〉 함평군 다문화가정 현황

## 분야 2. 지역자산의 관광자원화

### 1. 해글리공원

- 해글리공원의 면적은 182ha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공원이다. 리카톤 거리를 경계로 북·남공원으로 나뉘어져 북쪽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남쪽에는 럭비경기장, 하키 경기장이 설치되어 평소에는 각종 스포츠 경기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야외 콘서트 “클래식 스파크” 공연으로 마치 축제처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엑스포공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글리공원에서 본 것들 중 반영할만한 3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 첫째 먼저 공원에 있는 조형물들이다. 조형의 크기나 규모가 거대하거나 화려한 구조물은 아니나 조형물들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어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포토존 역할을 함으로써 공원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화 되어있다. 반면 우리 엑스포공원의 조형물은 매년 필요에 따라 설치와 해체를 반복함으로써 일관성이 없으며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배치가 약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조형물 등을 전수조사하여 에코 생태도시인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는 컨셉을 정하여 낡고 오래된 조형물 철거, 입체감 있는 조형물 설치 등의 재조정이 필요한 바 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제안드리는 바이다.



공원 조형물



공원 조형물(음수대)

□ 두 번째는 편팅을 이용한 함평천 활성화 방안이다. 편팅이란 평평하고 납작하게 생긴 배를 타고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 에이번강 편팅은 약 30분동안 진행되며 뱃놀이를 하는 동안 공원의 자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관광객 유입이 쉽지 않은 우리군에서는 함평천 영수교부터 대경보까지 이르는 약 1.1키로, 왕복 2.2키로 구간 천변 양안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꽃과 나비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경관에 함평천에는 편팅을, 함평천 제방 양안에는 전기자전거 탑승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에이번강 편팅 체험



자전거택시

□ 세번째는 클래식스파크라는 공연에서 착안한 것이다. 클래식스파크는 교향곡 절작, 오케스트라 팝 커버, 상징적인 영화음악, 대형 불꽃놀이가 결합된 가족 피크닉을 위한 무료 가족 콘서트로 2024년에는 CSO는 팝스타 애니 크러머(Annie Crummer), 지역 가수, 재능 있는 젊은 첼리스트 리치 투(Richie Tu)들이 함께 공연 했다고 한다. 함평의 대표적인 축제인 함평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엑스포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식상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관광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1999년 나비축제가 시작될 때와 비교해서 각 자치단체의 축제가 늘어난 원인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축제의 다변화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클래식스파크라는 공연을 우리 축제에 접목해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군 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영구적인 주무대를 설치하여 전국의 23개의 국공립 오케스트라 공연단을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초청 공연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오래된 축제의 비어있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 패딩턴 레저부야 가든

□ 사실 패딩턴 레저부야 가든을 선택한 이유는 급수시설이라는 말을 듣고 1921년 세워져 34년동안 철도 운송을 뒷받침 했던 전라도 서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가등록

문화재인 함평 구 학교역 급수탑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패딩턴 레저부야 가든은 저수지이고 학교면 급수탑은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시설들의 차이가 있다.

- 하지만 현재를 보면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공통점은 패딩턴 레저부야 가든과 학교면 급수탑이 현재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두었냐는 것이다.
- 패딩턴 레저부야 가든은 과거 급수시설의 외관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 반면 학교역 급수탑은 급수탑을 제외한 학교역사 등 주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학다리 나눔 숲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 레트로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에 초대, 2대 역사가 남아있었다면 충분히 급수탑 부근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연수 중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개발이란 명분 아래 옛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개발을 할 때 현재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학교면 급수탑 부근을 개발할 경우 기존 학교역으로 있었던 부분을 조금씩 반영하여(예, 급수탑과 맞먹는 크기의 기차 조형물을 설치하여 기차조형물에 급수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패딩턴가든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플랫폼이 된 것처럼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p>급수탑</p>	<p>안내간판</p>
	
<p>초대역사</p>	<p>2대역사</p>

### 3. 캐리지웍스

- 120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옛 철도청사 시설을 허물지 않고, 현대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캐리지웍스를 방문한 이유는 우리군의 함평천지전통시장 내에 있는 1958년 벽돌을 직접 쌓아서 건축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큰 변화 없이 잘 보존되어 있는 자광어린이집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 방문 했을 때 SYDNEY WRITERS' FESTIVAL이 진행 중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책도 구입하고 작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질의하는 모습에 오래된 공간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 현재 우리군에서는 2024. 2. 15.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

영, 자광어린이집을 철거하고 82면의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여 시장 및 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덧붙여 주차장 조성 시 현재 주차장이 조성된 곳에 자광어린이집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여 잊혀가는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 분야 3. 도시재생사업

#### 1. 바랑가루 도시재생

- 바랑가루(Barangaroo)는 과거 방치되었던 화물하역장을 현대적인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공원지구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한 프로젝트로, 시드니항과 인접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상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배치했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도 노력하였다.
- 도시재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의 물리적 측

면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측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 여건 확보, 사회 · 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으로 바랑가루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 현재 함평군에서는 주거 기능 회복,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 지역자산 특화산업 등을 위해 16,347백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중 주요 사업은 5,120백만 원을 투입한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동판매장 신축, 게스트하우스 신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시드니의 바랑가루 도시재생 부분을 보며 우리군의 사업에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다.
- 첫째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보수를 함에 따라 관광객들을 유인할만한 랜드마크 건축물이 없다는 점이다, 바랑가루 도시재생의 경우 바랑가루 하우스가 디자인공모에 따라 건립함에 따라 그 외관만으로 충분히 도시재생의 의도를 보여주고 하나의 관광 요소가 되었지만 우리군에는 이런 부분을 보여줄 만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부족하다.
- 사실 영산강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조성된 관광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산강 강변도로가 만들어진 이후로 도유지로 남아있는 부지(월호리 1042-5)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여 카페 또는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건물을 조성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두 번째는 바랑가루 도시재생은 50%이상의 면적을 공개공지로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직주락 (work live play)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바랑가루 리저브, 남북으로 길이 1km 정도로 펼쳐지는 수변 부지가 조성되었지만 함평읍 도시재생에서는 단지 3개의 소공원만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만한 환경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세 번째는 공공예술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바랑가루 개발청에서는 바랑가루 공공예술 및 문화 계획(The Barangaroo Public Art and Cultural Plan)에 따라 지구 내 공공

예술 프로그램 등 지구 공공공간에서의 생활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 예시는 표와 같다. 나비어울림센터는 1층은 청소년문화발전소, 2층은 현장지원센터, 3층은 청년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나비 어울림 센터에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동아리 방 6개, 다목적실 등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환경 및 공공예술 공간 확장,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제언한다.

우선 순위	프로젝트명	사업기간	주관사
1	Southern Gateway	2014-2015	Lend Lease(개발업체)
2	Major Aboriginal Artwork	2015-2017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NSW주정부 산하 개발관리청)
3	Scotch Row Light Art	2015-2018	Lend Lease
4	Nawi Cove	2015-2018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5	Barangaroo South Major Project	2015-2017	Lend
6	The Hungry Mile	2016-2019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Lend Lease 공동주관
7	Urban Park	2016-2020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및 개발업체 공동주관
8	Artistic Associates Program	2015-2020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9	Cultural Events and Programs	2015-2020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Lend Lease 공동주관

<표> 바랑가루 지구 내 공원, 중앙/남부지구 공공예술 프로젝트

- 이렇게 아쉬웠던 점들을 말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다. 랜드마크 가능한 건물을 짓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많이

제시하던 그밖에 공공예술 부분을 장려하던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서 확장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 함평군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번 국외 출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전달하고 잘 녹여내고 싶다.

#### 분야 4. 맞춤형 관광전략 개발

- 호주와 뉴질랜드는 청정자연 및 대표 랜드마크를 앞세운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다가 호주는 2022년 110만, 2023년 540만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또한 2022년 143만, 2023년 29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항, 철도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여행객을 위한 관광지 및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 두 나라는 특히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전략이 매우 뛰어난데 뉴질랜드의 레드우드 숲이나, 호주의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두 거대하고 웅장한 청정 자연환경 그대로를 앞세워 관광객들을 압도하면서도 관광객들의 흥미를 꾸준히 끌 수 있는 레저시설들이 매우 잘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레드우드 숲은 하늘을 향해 곧게 높이 치솟아 뽕뽕하게 들어차 있는 아름드리나무들과 원시림을 느낄 수 있는 숲에서 최상의 산림욕을 즐길

수 있어 트래킹과 조깅 코스로도 인기가 있었지만, 승마 체험, 산악자전거 파크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방문도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피오르랜드 국립공원 또한 거대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 관광지에, 스키, 보드 체험, 래프팅, 스노클링 등을 추가함으로써,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폭을 넓혔다.

- 이번 연수 중에 특히나 눈여겨본 블루마운틴 시닉월드 3종(케이블웨이, 레일웨이, 스카이웨이)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거나 특별한 소재가 있지 않다. 다만 그것들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치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경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레저시설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 전략이 매우 뛰어난 것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광 전략을 우리 군에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략을 구상하여 생태관광 도시로 나아갈 방안을 연구하는 게 급선무이다.
- 이에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공공형 승마시설과 산불피해지 복구 사업에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 먼저 공공형승마시설에 대한 의견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승마시설은 사실상 타 23개소의 공공형승마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규모로 볼 때 인근에 있는 영광이나 광주광역시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아그로돔은 트랙터를 타고 농장을 둘러보는 농장 체험, 쇼, 부가 상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우리군도 공공형승마장을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승마 체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 자연생태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말과 함께 사진 찍어 엮서 만들기, 말 당근 먹이 주기, 생태공원 매표소부터 매월교까지 약 2키로 구간의 마차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기본계획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함평자연생태공원



마차

- 두 번째, 우리군은 지난 2023년부터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산불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차례의 의회 용역 보고 시 산불피해지 복구뿐만 아니라 레드우드 수목원, 블루마운틴 복구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와 같이 산불 피해지 복구에서도 일부분의 땅을 매입하여 복구되는 산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소득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30~40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군 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아낌없이 개진하겠다.

## 분야 5. 민관협력관계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및 복구계획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낙뢰, 홍수,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 또한 극심한 블랙서머를 겪었다. 블랙서머는 2019~2020년 호주를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6개월 넘게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림 18만 6천km<sup>2</sup>가 불에 탔고, 33명이 숨졌다. 당시 재앙급 산불이 계속되면서 태평양 열대 바다의 수온을 끌어올려 2023년 초까지 3년간 이어진 라니냐 현상의 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다. 또한 올해 2월, 수일째 산불이 이어져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약 50km<sup>2</sup>, 여의도 면적의 17배 지역이 탔으며, 2천여 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블루마운틴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일주일 동안 국립공원 5만 헥타르(ha) 이상이 소실되었으며, 2019~20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이 국립공원 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세계문화유산의 80%(90만ha)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루마운틴의 유칼립투스 나무가 방출하는 유액은 휘발성이 강하며, 높은 온도, 작은 스파크에 발화 확률이 높아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앞에서 보았듯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의 간격이 짧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산림과 야생 동물 등 생태계 복구 어려움과 개체 수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블루마운틴은 방재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비상 연락

망, 회의, 지휘 시스템 등을 갖춘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 발생과 동시에 재난 규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상황실의 총책임자(Captain)를 결정하고 지휘 체계를 갖춘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리자를 임명하는 등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체계 또한 운영하고 있다.

- 함평군은 지난 2023년 4월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시작하여 641.45ha를 불태우고 28시간 만에 진화된 큰 산불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과 인접한 공장, 축사 등까지 산불이 확산해 다수의 시설이 피해를 보았으며, 헬기 11대, 인력 990명, 장비 574대 등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등 매우 큰 재난이었다.

우리 연수단이 블루마운틴 내에 있는 소방서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 현재 함평군은 작년부터 함평군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과 함께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다.

블루마운틴의 방재시스템과 함평군의 방재시스템을 접목하기에는 실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므로, 산불 사전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함평군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 조심 기간 및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 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고 알리고 있다. 또한 봄철, 가을철 산불 진

화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대의 산불 감시카메라를 운영, 불량목, 피해목, 고사목 등 숙아베기 등을 하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 발생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현재 활동에서 더 나아가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읍면 지역관리자 임명, 마을 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방지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 주민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함평군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불방지 대책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일 것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복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분야 6. 공원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

- 이번 연수에서 대자연을 품은 국립공원부터 시설 현대화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증진되어 있던 도심 내 공원까지 시찰하였다. 시찰한 결과 생태적 기능과 여가 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과 공원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 함평군의 엑스포공원이나, 함평자연생태공원에 접목하면 좋겠다 싶은 방법들이 눈에 띄었다.
- 첫째로는 다양한 코스 개발과 가시성이 좋게 정비된 코스안내판이다. 레드우드 수목원에는 걷기, 하이킹&러닝을 할 수 있는 여러 트랙이 존재한다.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최대 1시간(복귀)이 걸리는 Short walk 트랙, walking track, 일반적으로 조성된 길이 아닌 오지 느낌이 강한 짓밟기 트랙(Tramiping Track), 걷기와 산악자전거가 동시에 가능한 Dual-use track 등이다. 거기에 승마 체험, 산악자전거 트랙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코스를 안내하기 위하여 색이 다른 화살표 표시로 안내하는 코스안내판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 우리군의 함평천지길에는 세 가지의 보행 코스가 있다. 약 6km의 수산봉 숲속 둘레길과, 생태습지길(함평천 생태습지), 도시공원길(화양근린공원)이다. 최근 맨발 걷기가 건강을 좌우하는 트렌드로 급부상됨에 따라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유를 위해 우리군은 수산봉 숲속 둘레길 내에 함평천지 맨발길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이에 다양화된 보행로

코스로 군민과 외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반응과 레드우드의 사례를 보면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관광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생태습지 길이나 도시공원 길에도 지압산책로나, 동식물 탐색로, 러닝트랙 등과 같은 다양한 코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함평천지 맨발길의 구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엑스포공원까지 코스를 확장하여 맨발 황토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는 엑스포공원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을 제외하고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공간이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엑스포공원내에 기존 조성된 잔디광장 옆 200m의 소나무 길과 400m의 주제영상관 옆 숲길을 황토길로 변경 조성한다면 맨발 걷기를 원하는 군민과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코스안내판을 가시성 좋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와 뉴질랜드 공원은 코스 안내도 및 안내판이 매우 잘 설치되어 있어 처음 오는 관광객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코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천지길에 적용한다면 더욱 뛰어난 우리 군 명소가 될 것이다.

- 두 번째는 관람 동선의 인지 및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QR코드 이용 방안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도심 내 공원에는 여기저기에 QR코드가 적힌 안내판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큐레이티드 워크에 접속되어 공원 내 있는 훌륭한 장소와 공간, 문화유산 등의 위치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관람 동선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넓은 부지로 인해 처음 온 관광객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관람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QR코드를 이용한 안내 시스템을 적용하여 관람 동선이 인지되면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 볼거리 명소, 체험학습 등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스탬프 관광이나 제주 올레길 스탬프 투어처럼 문화 관광지에 방문하여 QR코드를 이용하여 스탬프를 찍으면 소액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관광 전략이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상시로 QR코드를 이용하는 레저활동 참여자에게 나비축제, 국향대전 입장권 사전 배부, 5일시장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번째로는 도심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관광 전략이다. 미디어 파사드는 조명과 영상 및 정보 기술을 결합한 첨단 기법으로서 건물의 본모습과는 다른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등 세계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이나 장소가 미디어 기능을 갖추게 되어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리옹에서는 1989년부터 ‘빛 축제’를 개최하면서 미디어 파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에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되어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에도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 건물이나, 지

역 관광지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현재 우리 엑스포공원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경관조명 총 26종 4,424점, 야간경관조형물 31종을 설치 야간 개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야간 개장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보면 소규모이며, 입체감 없이 설치되어 있다. 당초 함평자동 차극장과 연계하여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타지역의 관광객들이 유입되기보다는 밤 산책을 위해 군민들만 찾고 있는 실정이다.

시드니의 미디어파사드를 보면서 우리 연수단은 엑스포공원 내에 함평군립미술관, 주제영상관 건물이나 나비곤충생태관 등에 미디어파사드를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의 조명도 대형화 하고 집중화한다면 야간 개장을 보기 위하여 체류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입체감을 위해 화양근린공원 요소요소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



레드우드 수목원 내 다양한 보행로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공원 내 관광지 등을 안내하는 QR코드 안내문



공원 내 현재 위치와 가까운 관광지를 안내하는 QR 안내문



시드니의 미디어 파사드

## 분야 7. 기타분야

### 1.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연수를 다니면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펜이나 열쇠고리가 아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 속에서 익숙한 물건들을 관광 상품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농산물 가공하여 만든 탄산음료, 말린 과일, 알파카 털로 만든 인형 등 작지만 실속 있고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상품을 보며 우리군에 반영코자 한다. 기념품은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상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상징적인 기념품을 전달할 만한 상품이 없다. 이에, 아래 상품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대표하는 한우, 황금박쥐, 나비 등의 캐릭터로 주방 장갑, 기념주화, 냄비 받침, 앞치마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한다.



와인 마개



기념주화



나무 조각품



컵받침



주방오븐장갑



에코백



과일과 탄산수로 만든 음료



다양하게 말린 과일



앞치마



알파카 털을 이용한 인형

## 2. 교통체계 개선

- 연수 중 이동시간이 많아 호주의 교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먼저 회전교차로였다. 요즘 함평에도 동함평, 청수원 등 다양한 곳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다양한 상징물과 나무 등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반대쪽 차량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나무나 식물을 식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론 군 이미지를 위해 교통섬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두번째는 신호체계 부분이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신호체계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반영되어 3초 후에 초록신호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보행자가 적은 우리군에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 신호가 바뀌기 전 우리는 초록불이 깜박거리지만, 호주에서는 빨간불이 깜빡임에 따라 신호 바뀜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 세번째는 버스에서 이동 시에 항상 언급되었던 것 중의 하나인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3만 원이지만 호주에서는 과태료가 387달러이다. 교통과 관련된 사고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관해서도 관련된다.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시험단계로 되어있고 면허를 따는 데 2~3년이 걸리며 단계마다 임시면허를 L, P(1,2) 등급으로 받으면 그 임시면허라는 것을 번호판 옆에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의 사항들이 안전을 중요시하는 호주의 교통정책을 잘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같다.



회전교차로



신호체계

violation	Penalty Notice	Points
	Penalty	
<b>Seat Belts</b>	\$387	Three
Driver's seat position that does not occupy the driver's seat/seat belt mounting		

안전벨트 법령



운전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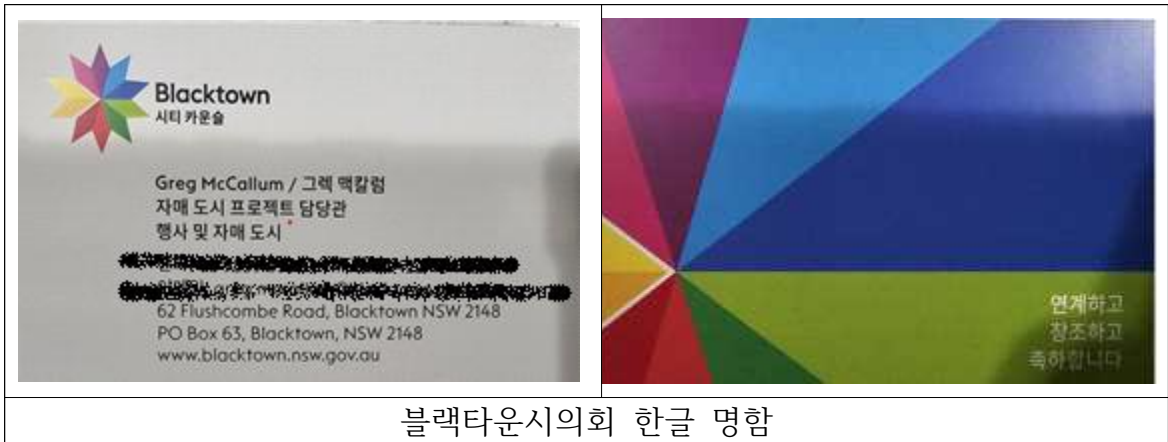
### 3. 자매결연

- 우리군은 베트남 람동성과 도시 간 단순 교류 자매결연이 아닌 1차적으로 관광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중점 업무 협약을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우리군은 기존에 6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맺었지만 사실상 특별한 교류 없이 이름만 남아있는 현황이다.

국 명	단 체 명	체결년도	비 고
필리핀	양 겔 레 스 시	2005. 10. 24.	자매결연
	팔 라 완 주 푸에르토프린세사시	2008. 05. 16.	우호교류
중 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창현	2004. 05. 03.	
	베 이 징 시 창 평 구	2004. 08. 16.	
	베 이 징 시 팡 산 구	2004. 08. 21.	
	허 난 성 덩 평 시	2014. 10. 17.	

〈표〉 함평군 국제교류 자치단체

- 블랙타운 시의회는 대구 수성구청과 1994년 11월부터 자매결연을 하고 30년 동안 경제(IT 기업교류 세미나), 문화(양 도시 전통공연단 문화 교류 공연), 교육(청소년 교류), 공동기획사업(울루루문화광장 조성, 코리아 수성 가든 조성 추진)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 및 우호 증진 서약을 체결했다.
- 블랙타운시의회에 방문하였을 때 직원은 수성구와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으며 한글로 작성된 명함도 자랑스럽게 전달하였다. 이런 예시를 참고하여 단편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람동성과 맺어 나갔으면 한다.



#### 4. 환경보전 정책

-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동굴에서는 동굴관광 시에도 내연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며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차와 커피를 마실 때도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만큼 환경보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또한 거리를 다니며 눈에 띄는 점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과 재활용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거리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었으며, 우리 군에도 거리 곳곳에 함께 비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



재활용 쓰레기통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통

-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지의 넘치는 쓰레기는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채식 인구의 증가, 텀블러 사용 등 시민들은 소비에서도 윤리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2024년 나비대축제가 선정되어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군은 일 년에 2회 자연을 주제로 큰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환경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축제 개최를 생각해봐야 한다.
- 아울러 우리 군이 가진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방안을 생각할 시 환경보존을 전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5. 건강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 이번 연수 중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가 운동이 일상화되어있는 모습이였다.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뛰고 걷는 모습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몸소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 이처럼 우리 군에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느 곳을 가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잔디볼링장



노인복지시설 내 탁구대



노인복지시설 내 당구대



노인복지시설 내 작은 도서관

## 연수를 마치면서

### 1. 의회운영위원장 정현웅

지난 5. 17.부터 8박 10일간 일정으로 소속 의원과 사무직원 등 6명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환경 청정국이자 다민족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지역 선진행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연수를 앞두고 4차례의 국외연수 학습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연수단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사전 준비를 통해 일정의 타당성, 장소의 적합성 등을 세심히 고려했고, 연수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려고 했다.

이에 우리 연수단은 현지의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한 호주 한인복지회, 블랙타운 시의회,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인 바랑가루 프로젝트의 현장 등을 방문하여 노인 및 다문화 복지정책과 의회 선진화, 도시재생에 관해 견문을 넓히기로 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현재 우리 함평군이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립공원과 수목원, 도심 내 공원 등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복구방안을 연구하고 싶었다.

이번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블랙타운시의회와 레드우드 수목원을 뺏을 수 있겠다.

블랙타운은 시드니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종합대학과 비즈니스 센터를 유치하고 위해 시의회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 나아가 수영장, 도서관, 레저센터와 같은 블랙타운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땅을 사서 계획을 세우고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했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환경을 보호하며 양질의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기업에 혁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의회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군의원들의 자세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의정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임업 시험장에서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 선 레드우드 수목원을 방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장기적인 시각의 복구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대동면 연암리 산 128 일원에서 시작하여 641.45ha를 불태우고 28시간 만에 진화된 큰 산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현재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레드우드 수목원과 국립공원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의 나무를 심더라도 당장 큰 변화를 위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복원과 발전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빨리 산불로 폐허가 된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고 특색 있는 산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로 복원이 필요하며, 미래 유산으로의 산림육성의 관점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함평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함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우리 함평군의 2024년 5월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40.7%(전국 17.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있다. 그래서 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진 노인복지 시스템을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고민하기로 하고 장장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8박 10일간의 뉴질랜드·호주 국외연수 길에 오르게 되었다.

뉴질랜드·호주의 노인복지 예산은 GDP의 약 10%이지만 우리나라는 GDP의 약 2.6%로 두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 점에서 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최대한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떠나기 전 다짐이 그러하였듯 노인복지 기관인 퀸스타운 컨트리 클럽을 방문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토론 및 질의·답변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와의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는 노인이 아플 때 치료하여 주는 ‘노인의료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노인이 아프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에 더 치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었다.

일례로 우리가 방문한 노인복지 기관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노인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탁구대, 당구대 등이 놓여 있었으며 어느 곳을 가도 잔디볼링장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사교활동도 충족시켜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노년기에 문제가 되고있는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 고독감, 소외감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노인복지의 방향을 의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가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노령층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 운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장려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6~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가파른, 아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언덕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초겨울의 추위에서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반팔, 반바지를 입고 공원을 뛰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다가왔다.

이처럼 우리도 결국 군민이 건강해야 개개인의 삶도 윤택해지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도 군민이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및 여가시설을 더욱 지원해서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인 의료복지보다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8박 10일간의 뉴질랜드·호주 국외연수를 통해 두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시설의 운영과 커뮤니티 센터 기관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연수였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함평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3.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군에 맞는 정책 개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은 8박 10일의 숨 가쁜 일정으로 뉴질랜드·호주 2개국의 국외연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과 문화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함평군에 적용하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은 초선의원인 저에게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관광상품과 도시재생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광상품 관련하여 룩스마켓, 캐리지웍스 등을 다니면서 본 와인마개, 컵받침, 주방오븐장갑, 앞치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이면서도 디자인, 품질에서도 우수하여 구매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군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보면 함평군을 대표하는 명확한 디자인이 없는 펜, 컵, 스티커 자석 등의 기성화 된 제품으로 평소에 활용도가 떨어지며 함평군에 대한 홍보 효과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치있는 디자인과 품질로 함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연수지 국가들은 건축물의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리지웍스는 120년이나 된 오래되고 낡은 옛 철도청사시설을 허물지 않고 현대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패딩턴 레저부아 가든은 지붕이 무너진 상수원을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 중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필요에 따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들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워케이션은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있는 건물들의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관광객 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우리군 출신인 문학인분들을 초청하여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관한 이야기도 듣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금 함평 아카데미처럼 유명 명사분들을 초청해서 대규모로 강의를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군 출신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친밀감과 우리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박 10일.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더욱 살기 좋은 함평군을 꿈꾸고 청사진을 그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고민한 동료의원 및 보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동행한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체를 다 담아 내지 못했지만 연수기간에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는 앞으로 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례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